

순천만박람회 입장권 들고 먹거리 10% 할인 받으세요

봄향 한가득 '맛조개탕' '도다리숙국' '정어리쌈밥' 등 10월까지...식당 128곳 참여 당일 입장권 할인 행사

7개월 대장정의 첫발을 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관람객 800만명을 목표로 순천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맛의 고장' 순천은 순천만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난 농수산물을 빚은 산해진미를 자랑하고 있다. 순천시는 행사가 열리는 오는 10월까지 지역 음식점 128곳에서 정원박람회 입장권을 지닌 당일 방문객에게 요금을 10% 할인하는 '외식업소 손님맞이 대책'을 펼치고 있다.

순천에는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 6431곳의 식품접객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순천시는 1693개의 식당 대표 음식과 가격, 주차장 등 편의시설, 주말 영업 여부 등 정보를 총망라해 '외식업소 편의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했다. 이들 음식점 정보는 순천만 습지 권역과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드라마 촬영장, 옷장, 아랫장, 문화의 거리 등 8개 권역으로 나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순천시는 최근 생태도시 여행의 즐거움을 눈과 귀, 입으로 더해 줄 '순천 6대 대표 먹거리'를 소개했다.

▷청정 순천만의 봄맛, 맛조개무침·맛조개탕=알이 굵고 쫄깃한 육질을 자랑하는 순천만 맛조개는 특유의 담백한 풍미가 일품이다. 잘 해감한 맛조개를 찜기에 넣고 찌면 맛조개찜으로, 물만 부어 끓여주면 그 자체로 시원한 맛조개탕이 된다. 살짝 데친

맛조개 껍데기를 일일이 까는 수고로움이 더해지면 새콤달콤 짭짤한 양념에 버무린 맛조개무침이 완성된다. 순천 낙안이나 도사 땅에서 자란 아삭한 오이나 콩이 좋은 순천만 미나리, 어느 쪽과 함께 버무려도 맛의 화룡점정을 찍을 순천만의 봄맛이다.

▷봄향 한가득, 순천만 미나리김치=세계 5대 연안습지로 꼽히는 순천만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작물 미나리가 난다. 순천만 일대 60여 농가가 농사짓는 순천포 미나리는 꼬막미나리조무침, 미나리떡갈비, 미나리삼겹살, 오리랑 곁들임 요리 등으로 변신한다. 순천에선 오래전부터 미나리를 '김치'로 즐겨왔다. 미나리김치 양념의 핵심은 갈치젓멸치액젓, 새우젓에 있다. 데친 미나리를 절인 양념에 조물조물 무치면 향긋하고 아삭한 순천만 미나리김치가 딱딱 만들어진다.

▷봄의 별미, 도다리숙국·정어리쌈밥=도다리숙국을 먹는 때가 되면 봄을 실감한다. 바다 내음을 담은 도다리와 땅의 기운을 품은 썩이 만났기 때문이다. 도다리숙국은 생선뼈 우린 육수로 진하게 끓여도 좋고, 은은한 된장에 들깨가루를 풀어 구수하게 끓여도 그만이다.

봄은 사계절 중 정어리가 최고로 연하고 맛있는 계절이다. 냄비에 잘 삶은 고사리를 푹신하게 깔고, 살 통통하게 오른 정어리를 양껏 올린 후 특제



청정 순천만의 봄맛을 담은 맛조개탕.



숯불에 즉석에서 구운 순천 닭구이.



도다리숙국.

양념장을 골고루 덮어준다. 알싸한 방아잎을 넣으면 정어리의 비린 맛을 잡아준다.

▷K-치킨의 재발견, 순천 닭구이=순천에는 닭의 다리 모양을 닮아 이름 붙여진 계족산(鷄足山)이 있다. 순천 서면 계족산 정소골에는 한양으로 가는 옛길 '관문길'이 있었는데,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들르는 정소골 주막에선 그들의 장원급제를 기원하며 마늘과 소금 등의 간단한 양념을 한 닭구이를 내었다. 전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닭구이골'에서는 순천시 닭구이를 만날 수 있다. 숯불에 즉석

에서 구운 닭을 찢어 잘라내 돌돌 말아 먹으면 별미 중의 별미이다.

▷순천 조계산 산채정식·매실차=해발 887m 호남 3대 명산 순천 조계산은 천년고찰 선암사와 송광사를 품고 있다. 이 일대에서 만날 수 있는 산채정식은 봄이면 고사리에 머위대, 두릅에 버섯류 등 수십 종류 반찬이 차려진다. 쌀밥이나 보리밥 취향대로 골라 참기름에 짹짹 비린 산채비빔밥에서는 형형색색 순천 정원의 향기가 오롯이 전해진다.

▷매화 향기 담은 순천 매실차·디저트=순천에는

탐매마을과 향매실마을이 있고 선암사에는 600년 된 매화가 핀다. 향매실마을에는 순천 매실의 효사인 이택중 선생 공적비가 세워졌다. 순천 매실은 매실청과 매실과약젤리, 매실호떡 등으로 새 생명을 얻고 미국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지역 청년 창업자들은 매실젤라토와 매실휘낭시에, 매실양갱, 매실 초콜릿, 매실수제맥주, 매실사이다 등을 개발하며 매실 고장의 명맥을 잇는다. 순천 낙안읍성 앞 카페에서는 매실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별난 우주여행'... 고흥 우주항공축제 4년만에 열린다

21~23일 나로우주과학관 일원 누리호 발사장 견학 예약 마감 드론택시·낚시 200여 체험 행사

국내 유일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 나로우주과학관 일원에서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제13회 고흥우주항공축제'가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전남과학축전과 함께 열려 200여종의 우주과학 관련 무료 체험과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 등 국내 유일의 테마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을 계획이다.

'별난 우주여행 웰컴투 고흥'이라는 주제로 4년 만에 열리는 우주항공축제는 4개의 테마로 나눠 우주과학 체험형 축제로 알차게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우주로 가는 플랫폼인 '누리호 발사장'을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가장 인기 있는 테마로 지난날 21일 나로우주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작해 일주일 만에 사전 예약 접수가 마감됐다. 군은 추가 신청자를 위해서 현장 예약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페이스 뮤지엄'이라는 테마로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는 상설·기획·야외 전시, 3D영상관 등 98종의 전시 체험과 더불어 국립정호년 우주센터에서는 1인승 우주선 조정 체험, 달 중력 체험, 천체투영관 등 우주과학 특성과 체험이 가능하다.

이어 '별별 과학 체험' 테마는 창의 융합 신규 과학 프로그램 등과 함께 AI 자율주행으로 떠나는 달 탐험 체험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80여종의 프로그램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별별 체험 마당' 테마는 드론 택시 등 드론 스포츠 체험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

며, 마술쇼와 버스킹 공연 등 매력 있는 볼거리도 함께 제공된다.

고흥군은 4개 테마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축제를 풍성한 축제로 개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흥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고흥몰'과 연계한 현장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생동감 있는 지역 특산물 판매와 더불어 고흥몰 시청자들에게 축제 홍보와 청정 농수특산물 판매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시대 흐름에 맞는 SNS 홍보로 MZ세대의 관심이 뜨거워진 가운데 고흥우주항공축제가 인플루언서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효과적 홍보가 이뤄지면서 전국적인 축제로의 비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흥=주자중 기자 gjuu@kwangju.co.kr

순천만정원박람회 관람객 100만명 돌파

100만번째 입장객 축하행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이 12일 100만명을 돌파했다.

주인공은 여수·순천에서 사는 20대 연인 류혜원(25)·김승원(27)씨였다.

순천시는 이날 오후 1시 39분께 순천만국가정원에서 100만 번째 입장객 축하행사를 벌였다.

도관구 순천시장은 이날 100만 번째 관람객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순천농협이 후원한 순천시랑상 품면 100만원권과 정원드림호 탑승권을 전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목표 관람객은 800만명이다. 개장 2주가 되기 전에 이미 목표의 12.5%를 달성한 셈이다.

한편 박람회조직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7시 20분부터 오전그린광장 수상대에서 100만 관람객 돌파 기념 경품 추첨을 벌인다. 오전그린광장 추첨함에 응모한 사람들이 대상으로 추첨을 해 50만원 상당 가드스테이 숙박권과 정원드림호 탑승권 등을 준다.

이날 박람회 주제공연인 '카이로스'도 함께 진행한다.

노 시장은 "10년 전 지은 박람회와 다르게 관람객 100만명을 앞당겨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올해 박람회의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변화를 보여줄 테니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정원을 또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의회가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지역사회와 상생을 촉구하고 있다.

"포스코 상생하라"... 피켓시위 나선 광양시의회

정비 자회사 설립 중단 등 촉구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가 포스코를 향한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광양시의회 의원들은 12일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지역 상생협력 및 소통 노력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시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일주일 지난 지금까지도 포스코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광양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한 기업윤리에도 위배되는 이율배반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어 "광양시민들은 생존권, 건강권의 위협을 감내하며 언제나 포스코를 응원해 왔지만, 포스코는 지주사 출범과정에서 광양시민을 철저

히 배제했으며 일방적으로 정비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광양시민들의 요구에 응할 때까지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해 갈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포스코가 ▲광양지역 상생협력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고, 이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일방적인 정비 자회사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지역업체 활용, 지역인재 채용 등의 상생 협력 방안을 실천할 것 등을 재차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포스코 홀딩스가 이차전지, 수소 등 미래 신사업을 광양시에 적극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 석유화학 마이스터고 높은 취업률 이유 있었네

3학년·졸업생 대기업 속속 진출 90명 중 63명의 학생 취업 성공 선생님 열정·학생들 노력 성과

국내 유일의 석유화학 마이스터고(사진)인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가 경기침체 등 채용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전체 취업률 70% 이상의 성과를 나타냈다.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교장 이상용)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여파에도 90명의 취업대상자 중 대기업·공기업에 57명의 학생이 취업했다.

또 석유화학 및 반도체, 에너지 관련 중견기업에 6명이 취업해 총 63명의 학생이 취업했다. 취업생들은 LG화학, GS칼텍스, 삼성전자, 포스코 등 10개의 대기업 입사가 확정됐고, 공기업·공무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해군 부사관 등 5개의 직종에 진출했다.

LG화학 13명, 현대오일뱅크 3명, 포스코 2명, 롯데케미칼 3명, GS칼텍스 1명, YNCC 2명, 포스코케미칼 7명, 한국바스프 1명, 삼성전자 10명을 비롯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명, 한국수자원공사 1



명, 한국가스안전공사 2명, 해군 부사관 1명, 전주페이퍼 2명, 엠코테크놀로지 9명, ENF테크놀로지 1명, 재원산업(주) 1명, 에스알이엔지(전남대학교 계약학과) 1명, 옵티멀에너지서비스(주) 1명 등이다.

LG화학에 합격한 3학년 김도군은 "선생님들의 지도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 강점은 더욱 강력한 무기로, 약점은 보완해 역량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면접에 임한 것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취업에 성공한 만큼 더욱 열심히 기량을 갈고닦아 회사와 사회가 원하는 능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에

졸업생과 연계를 통해 군대 제대 후 취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YNCC, GS칼텍스, LG화학, 롯데GS화학 등의 기업에 졸업생이 취업하는 성과도 나타났다.

졸업생 취업 관리 역량은 취업률 향상으로 이어졌으며, 졸업생 평균 취업률은 80%를 넘기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상용 교장은 "매년 질 높은 취업률은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목표 회사에 대한 부단한 공부와 노력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 연말까지 저소득 180가구 집 수리

여수시가 저소득 180가구 집을 수리해준다.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 사업' 추진 위수탁 업무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주거취약 180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진행한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중위 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중 실제 거주 가구에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가구는 도배와 장판, 창호, 지붕 교체 등을 지원받는다. 올해 사업비는 12억8000만원이

들어간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77가구 집을 수리하기도 했다.

올해는 장애인과 고령자 세대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도 설치해준다.

앞서 시는 LH와 사업 대상 180가구를 선정했으며 현장조사를 벌였다. 보수 범위와 시기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28~29일 '곡성꿈놀자학교 진로박람회'

'2023년 곡성꿈놀자학교 진로박람회'가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오는 28~29일 이틀간 열린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이 기간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함께 행복한 미래로'를 주제로 한 진로체험을 진행한다.

박람회 첫날에는 곡성지역 8개 초등학교 학생 800명이 참여한다.

이튿날인 29일에는 사전 신청을 한 전국 초등학교생이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선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4개 주제, 20개 공간으로 구성된 '꿈놀자 진로체험'을 한다. 미래 직업과 창의체험, 생태환경, 우리 마을 이야기 등으로 교육이 구성됐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4차 산업 미래사회 직업과 생태환경 미래직업, 우리 마을 미래직업 등 3개 주제, 28개 공간으로 나눠 '꿈놀자 미래체험'을 한다. 참가 신청은 18일까지 홈페이지(gokmg-jinro.or.kr)서 하면 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t@